

국악기 편성법의 변천에 대하여  
(國樂器 編成法의 變遷에 對하여)  
-특히 1920年 以後를 中心으로-1

張 師 勛  
〈서울大學校 音樂大學 教授〉

—차 례—

- |              |              |
|--------------|--------------|
| 1. 머리말       | 3. 宴禮 樂器 編成法 |
| 2. 祭禮 樂器 編成法 | 4. 맺는 말      |

1. 머리말

국악(國樂)에 있어서 관현악(管絃樂)이라면 아악(雅樂)[또는 정악(正樂)]에만 적용(適用)된다.

민속악(民俗樂)에서는 피리, 대금(大箏), 해금(奚琴), 장고(杖鼓)의 편성(編成)에 의한 시나위의 합주(合奏)를 제외하고는 합주형태(合奏形態)를 지닌 음악(音樂)이 전연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 다루려하는 국악기(國樂器)의 편성법(編成法)은 아악(雅樂)[정악(正樂)]에 국한(局限)되지 않을 수 없다.

국악기(國樂器)의 편성법(編成法)은 고려(高麗), 이조(李朝)를 통하여 많은 변천(變遷)이 있다.

특히 1910年 이후로는 과거(過去)와 같이 궁중(宮中)의 여러 의식(儀式)이나 행사(行事)에 메이지 않고 차츰 무대음악(舞臺音樂)으로서 독립(獨立)하게 됨에 따라 그 연주(演奏)의 효과(效果)를 위하여 여러 가지 새로운 악기 편성법(樂器 編成法)이 생기게 된 것이다.

1934年 이왕직아악부(李王職雅樂部)[국립국악원(國立國樂院)의 전신(前身)]에서 등사된 「악기 편성법(樂器 編成法)」은 당시 아악사장(雅樂師長)으로 재임하던 함화진씨(咸和鎭氏)가 엮은 것으로 안다.

전부(全部) 13면(面)으로 된 이 악기편성법(樂器編成法)에는 제례 악기 편성법(祭禮 樂器 編成法)으로 보태평(保太平), 정대업(定大業) 등 3곡(曲)과 연례 악기 편성법(宴禮 樂器 編成法)으로 승평만세지곡(昇平萬歲之曲) 등 35곡(曲)의 악기 편성법(樂器 編成法)이 수록(收錄)되어 있다.

이 악기 편성법(樂器 編成法)은 비록 등사본일망정 문자화(文字化)된 유일(唯一)한 자료(資料)이며 현재 국립국악원(國立國樂院)의 각종(各種) 악기 편성법(樂器 編成法)도 이 「악기 편성법(樂器 編成法)」이 바탕이 되어 다소 넘나들고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하여는 이혜구(李惠求) 박사(博士)가 필자(筆者) 저(著) 「국악개요(國樂概要)」에서 예시(例示)한 편성법(編成法)과 비교(比較)하여 상론(詳論)한 바 있다<sup>1)</sup>.

그러나 필자(筆者) 자신이 그 당시(當時)에 실제(實際) 연주(演奏)에 참여(參與)도 하고, 보아 오고, 또 1920년대(年代)의 프로그램이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관계로 이를 종합(綜合)하여 그때의 실정(實情)을 되살려 이 「악기 편성법(樂器 編成法)」을 비판(批判)함과 아울러 국악기 편성법(國樂器 編成法)의 변천(變遷)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2. 제례 악기 편성법(祭禮 樂器 編成法)

전기(前記) 「악기 편성법(樂器 編成法)」의 제례 악기 편성법(祭禮 樂器 編成法)에는 종묘(宗廟) 제례악(祭禮樂)·정동방곡(靖東方曲)으로 구분(區分)되고 있다.

이 「악기 편성법(樂器 編成法)」을 도표(圖表)로서 일람(一覽)하면 다음과 같다.

종묘 제례악(宗廟 祭禮樂)과 경모궁 제례악(景慕宮 祭禮樂)에는 각각 등가(登歌)와 헌가(軒架)에서 연주되는 절차(節次)가 있으며 그 편성법(編成法)도 서로 다르다.

경모궁 제향(景慕宮 祭享)은 1910년 이후(以後)로 폐지(廢址)되어 그 음악만이 국립국악원(國立國樂院)에 전승(傳承)되어 오지만은 종묘제향(宗廟祭享)은 1945년 8월까지 계속되어 왔다.

가. 宗廟 祭禮 樂器 編成法

樂名	編成法	編鐘	編磬	應響樂	大等	唐笛	奚琴	牙琴	太平箏	杖鼓	節鼓	晉鼓	祝	歌	拍	方響	大金
保太平之樂	①	1	1	2	2	1	1	1		1	1		1	1	1		
	②			1	2	1	1	1		1	1		1	1	1		
定大業之樂	①	1	1	2	2	1	1		1	1		1	1	1	2		
	②			2	2	1	1			1		1	1	1	1		
	③								1								
奠安之樂	①	1	1	2	2	1	1	1		1		1	1	1	1		

가. 종묘 제례 악기 편성법(宗廟 祭禮 樂器 編成法)

나. 景慕宮 祭禮 樂器 編成法

樂名	編成法	編鐘	編磬	應響樂	大等	唐笛	奚琴	牙琴	太平箏	杖鼓	節鼓	晉鼓	祝	歌	拍	方響	大金
照運之樂	①	1	1	2	2	1	1	1		1	1		1	1	1		
	②			2	2	1	1	1		1	1		1	1	1		
臨恩之樂	①	1	1	2	2	1	1		1	1		1	1	1	1		
	②			2	2	1	1			1		1	1	1	1		
奠安之樂	①	1	1	2	2	1	1	1		1	1		1	1	1		

나. 경모궁 제례 악기 편성법(景慕宮 祭禮 樂器 編成法)

1) 1966, 9 藝術論文集 第5輯 p. 113~131 「現行 國樂 管絃樂의 樂器 編成法」

8·15 해방(解放)과 더불어 폐지(廢止)된 종묘(宗廟)의 등가(登歌)와 헌가(軒架)의 악기 편성법(樂器 編成法)은 다음과 같다<sup>2)</sup>.

登歌의 編成法	南		北		南		北	
	大琴	大琴	歌	歌	唐箏	唐箏	唐箏	唐箏
軒架의 編成法	南		北		南		北	
	晉鼓	唐箏	歌	歌	杖鼓	杖鼓	杖鼓	杖鼓

이와 같이 집사(執事)·집주(執籌)·□·조촉(照燭)을 제외한 연주원(演奏員)은 등가(登歌)에 15명(名) 헌가(軒架)에 17명(名)으로 편성(編成)되었다.

한편 종묘 제례악(宗廟 祭禮樂)인 보태평지악(保太平之樂)은 헌가(軒架)의 영신(迎神)과 등가(登歌)의 전폐(奠幣)·초헌례(初獻禮)에 연주되고, 풍안지악(豐安之樂)은 헌가(軒架)의 진찬(進饌), 웅안지악(雍安之樂)은 등가(登歌)의 철□두(徹□豆), 흥안지악(興安之樂)은 헌가(軒架)의 송신(送神)에 각각 연주된다.

또 경모궁 제례악(景慕宮 祭禮樂)도 종묘 제례악(宗廟 祭禮樂)과 같이 희운지악(熙運之樂)은 영신(迎神)·전폐(奠幣)·초헌(初獻)에, 융은지악(隆恩之樂)은 아헌(亞獻)·종헌(終獻)에, 숙안지악(肅安之樂)은 진찬(進饌)과 송신(送神)에, 각각 연주되던 음악이다.

그런데 함화진(咸和鎭) 편(編) 「악기 편성법(樂器 編成法)」은 이와 같은 실제 제향(祭享) 때의 편성법(編成法)에 의거(依據)한 것이 아니고 무대 연주(舞臺 演奏)를 위한 편성법(編成法)과 같은 인상(印象)을 주고 있다.

그러나 무대 연주 편성법(舞臺 演奏 編成法)으로서도 불합리(不合理)한 점이 발견(發見)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1945년까지 제향(祭享) 때 연주되던 종묘 제례악(宗廟 祭禮樂)의 편성법(編成法)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1) 보태평지악(保太平之樂)·정대업지악(定大業之樂)·희운지악(熙運之樂)·융은지악(隆恩之樂)은 각각 두 가지 편성법(編成法)으로 구분(區分)되었는데, ①은 편종(編鍾)과 편반(編磬)을 넣은 대편성(大編成)이고, ②는 편종(編鍾) 편경(編磬)을 뺀 편성법(編成法)이다.
- (2) 보태평지악(保太平之樂)과 정대업지악(定大業之樂)의 ①의 편성법(編成法)은 비교적(比較的) 실제 제향(祭享) 때의 편성법(編成法)에 가까우나 등가(登歌)와 헌가(軒架)의 구분(區分)이 없다.

2) 拙著 國樂概要 p. 76~77

보태평지악(保太平之樂)이 등가 편성법(登歌 編成法)이라면 당필률(唐箏)을 셋으로 하고 방향(方響)을 넣고 해금(奚琴)·당적(唐笛)·어(敵)를 빼야 한다.

반대(反對)로 그것이 헌가(軒架)라면 당필률(唐箏)을 셋으로 하고 방향(方響)을 넣고 아쟁(牙箏)·당적(唐笛)·어(敵)를 빼고 절고(節鼓) 대신 진고(晉鼓)를 써야 한다.

(3) 따라서 당필률(唐箏)을 셋으로 하고 방향(方響)·대금(大金)을 넣고 아쟁(牙箏)·당적(唐笛)·어(敵)는 빼고 절고(節鼓) 대신 진고(晉鼓)를 써야 한다.

(4) 다음 종묘 제례악(宗廟 祭禮樂) 응안지악(雍安之樂)은 그것이 철번두(徹籩豆)에 쓰이는 등가악(登歌樂)이므로 보태평지악(保太平之樂)의 등가 편성법(登歌 編成法)과 같아야 한다.

또 풍안지악(豐安之樂)[진찬(進饌)]과 흥안지악(興安之樂)[송신(送神)]은 헌가악(軒架樂)이지만 태평소(太平簫)와 대금(大金)을 빼 정대업지악(定大業之樂)의 편성법(編成法)에 따라야 한다.

(5) 경모궁 제례악(景慕宮 祭禮樂)도 종묘(宗廟)에 준(準)하여 설명(說明)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악기 편성법(樂器 編成法)」의 ①과 ②는 종묘 제례악(宗廟 祭禮樂)이나 경모궁 제례악(景慕宮 祭禮樂)의 실제 편성법(編成法)과 다르다.

그렇다면 무대음악(舞臺音樂)으로서의 편성법(編成法)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역시 합리(合理)하지 못하다.

(1) 보태평지악(保太平之樂)과 흥안지악(興安之樂)에 해금(奚琴)과 아쟁(牙箏)을 같이 편성(編成)할 수 있을 것이고, 정대업지악(定大業之樂)의 진고(晉鼓)는 절고(節鼓) 또는 좌고(座鼓)로 바꾸어야 하고 어(敵)는 사용할 수 없고, 더욱이 연주법(演奏法) 모르는 장고(杖鼓)를 편성(編成)할 수 없다.

(2) 정대업지악(定大業之樂)의 편성법(編成法) 중의 ③은 태평소(太平簫) 하나로 되어 있다.

이 태평소(太平簫)는 정대업중(定大業中) 인입장(引入章)인 소무(昭武), 여섯째 곡(曲)인 분웅(奮雄), 인출장(引出章)인 영관(永觀)에만 사용되는 까닭으로 정대업지악(定大業之樂)의 ①에 들 것이지 독립(獨立)될 수 없다.

다 문묘 제례 악기 편성법(文廟 祭禮 樂器 編成法)

편성악기 악명(樂名)	編種 (편종)	編磬 (편경)	篎(호)	塤(훈)	籥(약)	□(□)	琴(금)	瑟(슬)	笙(생)	簫(소)	柷(축)	敔(어)	拍(박)
응안지악 (凝安之樂)	1	1	1	1	1	1	1	1	1	1	1	1	

응안지악(凝安之樂)은 보통 황중궁(黃鍾宮)·대여궁(大呂宮)·태족궁(太簇宮)·협중궁(夾鍾宮)·고세궁(姑洗宮)·중여궁(仲呂宮)·□□宮·임중궁(林鍾宮)·이칙궁(夷則宮)·남여궁(南呂宮)·무사궁(無射宮)·응중궁(應鍾宮)의 12궁(宮)과 송신(送神) 협중궁(夾鍾宮)·송신 임중궁(送神 林鍾宮)·송신 황중궁(送神 黃鍾宮)의 3궁(宮)을 합(合)한 15궁(宮)을 가르켜 말하는데, 실제 문묘 제례 절차(文廟 祭禮 節次)에 있어서는 조금 다르다.

즉 영신악(迎神樂)[헌가(軒架)]·송신악(送神樂)[헌가(軒架)]·망요악(望燎樂)[헌가(軒架)]은 응안지악(凝安之樂)[영신(迎神)에는 황종궁(黃鍾宮) 3회(回)·중여궁(仲呂宮) 2회(回)·남여궁(南呂宮) 2회(回)·이척궁(夷則宮) 2회(回)를 연주하고, 송신(送神)과 망요(望燎) 때도 송신 황종궁(送神 黃鍾宮)을 연주함이라 하고, 전폐악(奠幣樂)[등가(登歌)]은 명안지악(明安之樂)[남여궁(南呂宮)], 초헌악(初獻樂)[등가(登歌)]과 아헌(亞獻) 및 종헌악(終獻樂)[헌가(軒架)]은 성안지악(成案之樂)[초헌(初獻)은 남여궁(南呂宮)·아헌(亞獻)과 종헌(終獻)은 고세궁(姑洗宮)], 칠변두악(徹籩豆樂)[등가(登歌)]은 오안지악(媯安之樂)[남여궁(南呂宮)]이라 하며, 초헌(初獻)과 아헌례(亞獻禮) 사이에 문무(文舞)가 무무(武舞)로 바뀔 때는 □안지악(□安之樂)(고세궁(姑洗宮)]이 연주된다.

이 문묘 제례악(文廟 祭禮樂)은 지금도 경학원(經學院)에서 봄 가을 두 번 제향(祭享)을 받들 때 연주되는데 그 악기 편성법(樂器 編成法)은 다음과 같다<sup>3)</sup>.

登歌의 編成法	北									
	琴	瑟	拍	瑟	瑟	瑟	瑟	瑟	瑟	瑟
	散	編	節	特	特	祝	編	編	編	編
	遠	黃	墳	陸	上	翁	篋	篋	篋	篋
軒架의 編成法	陸下									
	瑟	瑟	拍	瑟	瑟	瑟	瑟	瑟	瑟	瑟
	晉	散	編	祝	編	路	路	路	路	路
	墳	篋	篋	篋	篋	篋	篋	篋	篋	篋

그런데 「악기 편성법(樂器 編成法)」의 응안지악 편성법(凝安之樂 編成法)은 문묘(文廟)의 등가(登歌)나 헌가(軒架)의 편성법(編成法)이 아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1930년대(年代)의 무대 연주(舞臺 演奏)를 위한 편성법(編成法)도 아니다.

왜냐하면 금(琴)은 이미 그 당시(當時)에 연주법(演奏法)을 아는 이가 없었고 생(笙)은 쓴 예(例)를 못 보았고 특히 박절(拍節)을 짚는 부(缶)와 고(鼓)가 빠질 수 없기 때문이다.

라. 정동방곡(靖東方曲) 악기 편성법(樂器 編成法)

편성(編成)악기	編鐘	編磬	唐磬	大琴	唐笛	奚琴	牙箏	杖鼓	座鼓
곡명(曲名)	편종	편경	당필률	대금	당적	해금	아쟁	장고	좌고
정동방곡 (靖東方曲)	1	1	2	2	1	1	1	1	1

이 음악은 이조 초기(李朝 初期)에는 문소전(文昭殿)의 종헌(終獻)과 □제(□祭)의 아헌(亞獻)·종헌(終獻) 및 칠변두악(徹籩豆樂)으로서 사용되었다.

3) 拙著 國樂概要 p. 72~73

그러나 1930년대(年代)에는 제향(祭享)과 관계없이 그 음악(音樂)만이 연주되었으므로 과거(過去)의 편성법(編成法)은 이어 받지 않았다.

이 악기 편성법(樂器 編成法)은 좌고(座鼓)가 쓰인 점으로 보아도 새로운 편성법(編成法)이라 하겠는데 정동방곡(靖東方曲)에 있어서는 이미 그 연주법(演奏法)을 상실(喪失)한 장고(杖鼓)를 편성(編成)한 점이 말심(末審)하다.

### 3. 연례 악기 편성법(宴禮 樂器 編成法)

필자(筆者)가 국악개요(國樂概要)에 열거(列舉)한 아악곡(雅樂曲) 전반(全般)에 걸친 편성법(編成法)은 1931년부터 1945년까지 15년간(年間) 이왕직아악부(李王職雅樂部)에서 일반적(一般的)으로 연주되던 편성법(編成法)에 비교적(比較的) 충실(充實)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함화진(咸和鎭) 편(編)의 「악기 편성법(樂器 編成法)」이나 국악개요(國樂概要)의 편성법(編成法) 또는 현재(現在) 국립국악원(國立國樂院)에서 여러 가지로 편성하는 편성방법(編成方法)은 그것이 기준(基準)은 되겠지만 어느 것이나 절대적(絕對的)인 것이 아님은 말할 것도 없다.

왜냐하면 1910년 이씨조선(李氏朝鮮)의 대(代)가 끝남으로써 궁중(宮中)의 여러 가지 의식(儀式)에 갖추어 쓰던 연주형태(演奏形態)는 무너지고 무대음악(舞臺音樂)으로 형성(形成)되면서 편성방법(編成方法)도 달라지고 그 편성법(編成法)에 따른 용어(用語)도 차츰 바뀌게 된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현재(現在) 국립국악원(國立國樂院)에서는 주로 합악(合樂)·관현합주(管絃合奏)·관악합주(管樂合奏)·현악합주(絃樂合奏)·세악(細樂)·병주(並奏)·독주(獨奏) 등의 용어(用語)를 사용하고, 또 줄(사[絲])풍류(風流)·대(죽[竹])풍류(風流)·삼현육각 등의 용어(用語)도 남아 있다.



〈단원 김홍도(檀園 金弘道)의 검무도(劍舞圖)〉

우(右)로부터 북·장고(杖鼓)·대금(大琴)·피리2·해금(奚琴), 즉 삼현육각



〈국립국악원(國立國樂院) 연주의 삼현육각〉

우(右)로부터 좌고(座鼓) · 장고(杖鼓) · 향(鄕)피리2 · 대금(大箏) · 해금(奚琴)

이중에서 줄풍류(風流) · 대풍류(風流) · 삼현육각과 같은 용어(用語)는 재래(在來) 불리워 오던 것이고 합악(合樂) · 관악합주(管樂合奏) · 세악(細樂) 등은 새로 쓰이게 된 용어(用語)로 생각된다.

(寫眞 1, 2 參照)

#### 가. 1920년대(年代)의 연주형태(演奏形態)

그런데 다행(多幸)히도 1922년부터 1944년 사이에 인쇄(印刷)된 많은 「프로그램」과 1933년부터 1945년까지 이왕직아악부(李王職雅樂部)에서 매월(每月) 1회(回)씩 발표회(發表會)를 가진 150회(回)의 이습회(肄習會) 「프로그램」이 간직되어 있기로 이에 의거하여 알아 보기로 한다.

우선 1922년부터 1932년까지의 연주곡목(演奏曲目)과 편성법(編成法)에 따른 용어(用語)를 들면 다음과 같다.

樂曲日期 黃曆年月日	樂曲名													摘要			
	太平春之曲	平高秋之曲	長春不老之曲	星祥之曲	醉太平之曲	天祥日之曲	瑞日和之曲	原無國之曲	鳳凰吟之曲	武寧之曲	萬世息之曲	柳初野之曲	頤九如之曲		翰林別曲	木龍吟	重光之曲
1922. 9. 19	(1) 吹樂	(2) 吹樂	(3) 吹樂	(4) 絃樂	(5) 吹樂	(6) 絃樂	(7) 吹樂										註：( )內的 아라이 어數字는 平呂二聲의 순서임.
1923. 3. 25	(1) 出宮樂	(2) 管樂	(3) 管樂	(5) 管樂	(6) 絃樂	(7) 管樂	(3) 管樂	(4) 管樂									
1923. 5. 25					(1) 吹樂	(2) 絃樂			(3) 吹樂								私立中央學校推選 主催 音樂大演樂會 於京城公會堂
1924. 2. 2	(5) 無	(3) 無			(2) 無				(1) 無	(4) 無							第125回 日中聯絡會演習員歡迎 晚餐會 於朝鮮王城
1924. 5. 26			(3) 絃樂	(4) 管樂	(2) 絃樂			(1) 管樂	(5) 管樂	(一) 管會 絃樂							於龍山官邸 (1)之 午餐會 (一)之 晚餐會
1924. 6. 10	(1) 管樂				(6) 絃樂	(7) 管樂							(2) 管樂	(3) 管樂	(4) 絃樂	(5) 管樂	昌德宮 午餐會



演 奏 年 月 日	雅 樂 曲 名													摘 要						
	太平春之曲	昇平萬歲之曲	長不老之曲	春 神 之 曲	天 祥 日 之 曲	天 日 和 之 曲	景 無 疆 之 曲	鳳 凰 吟 之 曲	萬 年 息 之 曲	頌 九 如 之 曲	輪 林 別 曲	水 龍 吟	其 壽 水 島 之 曲		正 萬 力 之 曲	壽 齊 天 之 曲	壽 延 長 之 曲	成 寧 之 曲	靖 東 方 曲	萬 年 長 歌 之 曲
1924. 8. 23	(1) 管樂	(3) 管樂			(5) 細樂	(7) 管樂		(6) 管樂	(4) 管樂				(2) 管樂							
1924. 9. 19	(1) 管樂	(2) 管樂			(4) 細樂	(7) 管樂							(3) 鼓樂	(5) 管樂						
1924. 9. 20	(1) 無	(2) 無			(5) 無	(7) 無	(4) 無			(6) 無						(3) 無				
1925. 1. 7	(1) 管樂	(3) 管樂			(5) 細樂	(7) 管樂	(2) 管樂	(6) 管樂									(4) 管樂			
1925. 1. 8	(1) 管樂		(3) 管樂	(2) 管樂	(5) 細樂	(7) 管樂									(6) 管樂		(4) 管樂			
1925. 3. 25	(1) (一) 管樂	(三) 管樂			(六) 管樂	(5) 細樂	(7) (七) 管樂	(2) 管樂			(五) 細樂	(四) 管樂			(4) 管樂		(一) 管樂	(3) 鼓樂	(6) 管樂	(1) 之 午餐會 (一) 之 祝賀會
1925. 4. 18	(1) 管樂	(3) 鼓樂			(5) 細樂	(6) 管樂			(4) 管樂										(2) 管樂	

演 奏 年 月 日	雅 樂 曲 名													摘 要						
	太平春之曲	昇平萬歲之曲	長不老之曲	春 神 之 曲	天 祥 日 之 曲	天 日 和 之 曲	景 無 疆 之 曲	鳳 凰 吟 之 曲	萬 年 息 之 曲	頌 九 如 之 曲	輪 林 別 曲	重 光 之 曲	致 和 平		其 壽 水 島 之 曲	壽 齊 天 之 曲	壽 延 長 之 曲	萬 年 長 歌 之 曲	滿 殿 春	日 月 似 之 曲
1925. 4. 27	(1) 管樂				(5) 細樂	(7) 管樂			(4) 管樂			(6) 管樂			(3) 鼓樂		(2) 管樂			於 祝 賀 會
1925. 7. 29		(2) 鼓樂			(4) 細樂	(6) 管樂	(1) 管樂		(5) 管樂								(3) 管樂			
1925. 8. 3	(1) 管樂			(3) 鼓樂	(5) 細樂	(6) 管樂							(4) 管樂	(2) 管樂						於 祝 賀 會
1925. 9. 19	(1) 管樂	(3) 管樂			(6) 細樂	(7) 管樂	(2) 管樂		(4) 鼓樂								(5) 管樂			
1925. 10. 17		(3) 鼓樂	(4) 管樂		(5) 細樂			(6) 管樂							(1) 管樂		(2) 管樂			



演樂曲日 區分 演樂年月日	樂曲名											備要								
	長春不老之曲	春不老之曲	靜太平之曲	樂天舞日之曲	樂日和之曲	樂舞之曲	鳳凰吟之曲	武寧之曲	萬壽之曲	初初之曲	頌九如之曲		水龍吟	壽齊天之曲	壽長長之曲	萬年長歌之曲	兩殿春	獻天壽	會八仙	慶陽春
1929. 10. 20	(3) 絃樂	(4) 管樂	(5) 細樂			(1) 合樂		(6) 合樂							(2) 管樂					於秘苑 宙合樓
1930. 7. 10				(3) 管樂	(1) 管樂			(4) 管樂		(2) 管樂										於仁政殿
1930. 10. 13				(3) 管樂				(5) 管樂				(1) 管樂			(2) 絃樂		(4) 細樂			於仁政殿
1930. 11. 3				(4) 合樂	(6) 管樂			(2) 管樂	(3) 絃樂	(1) 合樂									(5) 細樂	於秘苑 宙合樓

演樂曲日 區分 演樂年月日	樂曲名											備要								
	長春不老之曲	春不老之曲	靜太平之曲	樂天舞日之曲	樂日和之曲	樂舞之曲	鳳凰吟之曲	萬壽之曲	初初之曲	頌九如之曲	水龍吟		壽齊天之曲	壽長長之曲	萬年長歌之曲	兩殿春	獻天壽	會八仙	慶陽春	
1931. 4. 27	(1) 合樂			(4) 細樂	(3) 管樂	(5) 合樂	(2) 管樂													於仁政殿
1931. 7. 20	(2) 管樂	(3) 細樂			(6) 合樂			(1) 合樂						(5) 管樂		(4) 管樂				於仁政殿 西行閣
1931. 11. 4	(5) 管樂			(4) 細樂					(1) 管樂	(2) 管樂				(3) 管樂						於仁政殿 東行閣
1932. 1. 4	(5) 管樂			(4) 細樂	(2) 管樂				(1) 管樂										(3) 管樂	王世子誕辰祝賀午 餐會(李政) 於仁政殿 東行閣

위의 표(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22년과 1923년의 「프로그램」에는 취악(吹樂)·현악(絃樂)·세악(細樂)으로 구분(區分)되고 1923년에는 취악(吹樂)과 관악(管樂)의 명칭(名稱)을 혼용(混用)하다가 1924년 이후로는 취악(吹樂)의 용어(用語)는 없어지고 관악(管樂)이란 말로 바꾸어 계속하여 쓰고 있다.

합악(合樂)이라는 말은 1928년 보태평 합주(保太平 合奏)에 처음으로 쓰기 비롯하여 차츰 그것이 고정(固定)되어 가고 있음을 알 것이다.

이혜구(李惠求) 박사(博士)가 「현행 국립국악원의 악기 편성법(現行 國樂管絃樂의 樂器 編成法)」에서

『필자(筆者)가 아는 한에서는 이 합악(合樂)이라는 용어(用語)는 증보문헌비고(增補 文獻備考) 등의 문헌(文獻)에 없는 것으로 보아 아마 함화진씨(咸和鎭氏)가 이왕직악부(李王職雅樂部) 재임(在任)중에 새로 만든 말인지도 모른다』<sup>4)</sup>

고 한 다음 합악(合樂)을 전정 헌가(殿庭 軒架)의 변화형(變化形)이라고 하였다<sup>5)</sup>.

4) 藝術院 論文集 第5輯 p. 124

5) ①成宗時代의 殿庭軒架

②李朝末의 殿庭軒架



大正十三年五月二十八日  
於龍山官邸

### 雅 樂 曲 目

- (1) 鳳 凰 吟 (管 樂).....李 朝 樂
- (2) 堯 天 舜 日 之 曲 (細 樂).....高 麗 樂
- (3) 長 春 不 老 之 曲 (絃 樂).....李 朝 樂
- (4) 醉 太 平 之 曲 (管 樂).....李 朝 樂
- (5) 萬 波 停 息 之 曲 (管 樂).....高 麗 樂

### 晚 餐 ノ 後

- (1) 頌 九 如 之 曲 (管絃鐘磬合奏).....李 朝 樂
- 以 上

寫眞 4. <1924년 5월 28일 프로그램>

寫眞4. <1924년 5월 28일 프로그램>

日 八 十 月 十 年 三 和 明

### 目 曲 樂 奏

一	一	一	一	一	一	一
萬	堯	長	醉	重	鳳	保
波	天	春	太	光	鳳	太
停	舜	不	平	之	吟	平
息	日	老	之	曲	之	之
之	之	之	曲	曲	樂	樂
曲	曲	曲	曲	曲	樂	樂
管	細	管	獨	絃	管	合
樂	樂	樂	奏	樂	樂	樂
同	(高麗)	創李朝	(高麗)	創李朝	(新羅)	創李朝
	安羅	世祖	安羅	世祖	世宗	世宗
	時	時	時	時	時	時
上	時	時	時	時	時	時

寫眞 5. <1928년 10월 18일 프로그램>

寫眞5. <1928년 10월 18일 프로그램>

사실 합악(合樂)이라는 말은 옛날에는 없었던 것이다.

이 합악(合樂)이라는 말은 1928년에 처음 보이고, 1924년 「프로그램」에는 송구여지곡(訟九如之曲)을 「관현종경합주(管絃鍾磬合奏)」라고 명기(明記)된 점으로 미루어 대편성(大編成)의 관현합주(管絃合奏)에 편중(編鍾)과 편경(編磬)을 편성(編成)하여 「관현종경합주(管絃鍾磬合奏)」라고 부르고, 1928년 이후부터 합악(合樂)으로 차츰 바꾸어 쓰다가 1930년대(年代)에 이르러 완전(完全)히 합악(合樂)의 용어(用語)로 대치(代置)된 것임이 확실(確實)하다.

이와 같이 취악(吹樂)과 관악(管樂)이 서로 변동(變動)되고 새 용어(用語)인 「관현종경합주(管絃鍾磬合奏)」는 합악(合樂)으로 바뀌고, 대취타(大吹打)의 대(對)로 삼현육각(三絃六角)에 해당되던 세악(細樂)은 세(細)피리를 중심(中心)으로 한 실내악적(室內樂的)인 작은 편성법(編成法)을 가리키는 용어(用語)로 전용(轉用)되었다.(寫眞3·4·5 參照)

한편 곡명(曲名)에서도 실제로 연주될 수 없는 한림별곡(翰林別曲), 만전춘(滿殿春), 치화평(致和平) 등의 옛 곡명을 함부로 잦다 쓰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고, 또 한말년(韓末年)의 여령정재홀기(女伶呈才笏記) 등에 보허자(步虛子) 한 곡에 요천순일지곡(堯天舜日之曲)·장춘불노지곡(長春不老之曲)·수요남극지곡(壽耀南極之曲)·송구여지곡(訟九如之曲) 등 수 많은 판 이름을 붙이고 있는<sup>6)</sup> 예에 의하면 아악곡(雅樂曲)에 붙여진 아명(雅名)은 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절대적인 이름이 못된다.

#### 나. 1930년대(年代)의 악기 편성법(樂器 編成法)

앞에 든 이왕직아악부(李王職雅樂部)의 「악기 편성법(樂器 編成法)」의 연례 악기 편성법(宴禮 樂器 編成法)에는 승평만세지곡(昇平萬歲之曲) 등 35곡(曲)에 대하여 각각 두 가지에서 여섯 가지에 이르는 편성법(編成法)이 소개되어 있다.

이 연례 악기 편성법(宴禮 樂器 編成法)을 일람(一覽)함과 동시(同時)에 같은 시기에 등사(육면(六面))된 연례악곡(宴禮樂曲)의 관명(管名)·속명(俗名)·현명(絃名)과 그 적요란(摘要欄)의 기재사항(記載事項)을 아울러 정리(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6) 拙著 國樂論考 p. 521~530 「雅樂曲名の 再檢討」 參照



樂器編成法 樂器編成法序	編成法 曲名	樂器													同時期 家禮 樂曲名稱區分									
		鼓	編	唐	鄭	細	大	唐	短	英	牙	笙	太	杖		唐	거	가	洋	琵琶	琴			
13	游延長之曲	①	1	1		2		2	1		1			1	1									管名 游延長之曲 杖名 賀聖朝 俗名 尾遷入 一名 밀도드리
		②				2		2	1		1			1	1									
14	賀聖朝	①									1			1		1	1	1	1	1	1	1		
		②									1			1		1	1	1	1	1	1	1		
15	頌九如之曲	①	1	1		2		2	1		1			1	1									管名 頌九如之曲 杖名 瑞鶴曲 俗名 經遷入 一名 칸도드리
		②				2		2	1		1			1	1									
16	瑞鶴曲	①									1			1		1	1	1	1	1	1	1		
		②									1			1		1	1	1	1	1	1	1		
17	游齊天之曲	①				2		2	1		1	1		1	1									管名 游齊天之曲 俗名 井邑 一名 밋가곡井邑
		②				2		2	1		1	1		1	1									
18	動動	①				2		2	1		1			1	1									管名 動動 俗名 井邑 一名 밋가곡井邑 抽換 斗 之 井邑·鳳凰 時之 俗名井邑 游齊天·祥平萬歲 之曲·游延長之曲 ·表正美力之曲可 龍繪云云
		②				2		2	1		1			1	1									
19	太平春之曲	①	1	1	2			2	1		1	1		1	1									管名 太平春之曲 俗名 本令
		②			1			2	1		1	1		1	1									
20	瑞日和之曲	①			2			2	1		1	1		1	1									管名 瑞日和之曲 俗名 解令
		②			2			2	1		1	1		1	1									
21	景壽無疆之曲	①	1	1	2			2	1		1	1		1	1									管名 景壽無疆之曲 杖名 景壽無疆曲 俗名 樓
		②			2			2	1		1	1		1	1									
22	其壽永昌之曲	①	1	1	2			2	1		1	1		1	1									管名 其壽永昌之曲 杖名 夏雲鐘 俗名 岳陽山
		②			2			2	1		1	1		1	1									
23	長春不老之曲	①	1	1	2			2	1		1	1		1	1									管名 長春不老之曲 杖名 黃河清之曲 俗名 步虛子
		②			2			2	1		1	1		1	1									
24	黃河清	①															1	1	1					
		②															1	1	1					
25	萬波停息之曲	①	1	1		2		2	1		1			1	1									管名 萬波停息之曲 杖名 壽慶南極 俗名 吹打
		②			2			2	1		1			1	1									
26	壽慶南極	①				1	1				1			1		1	1	1	1					
		②														1	1	1	1					
27	武寧之曲	①											1											管名 武寧之曲 俗名 大吹打
		②											1											
28	折花	①				1	1		1	1														管名 折花 俗名 軍樂
		②					1		1	1														
		③							1				1											



編成樂器 樂名	編成樂器											同時期 實體 樂曲名別區分								
	編種	編磬	唐箏	短箏	細箏	大箏	唐笛	短笛	奚琴	牙琴	笙		太平	杖鼓	座鼓	小鼓	大鼓	洋琴	琵琶	琴
29 日月恒之曲	① ② ③				1 1	1 1		1 1	1 1			1								管名 日月恒之曲 俗名 念佛 撰要 相樂
30 亮天昇日之曲	① ② ③				1 1	1 1		1 1	1 1			1								管名 亮天昇日之曲 社名 會八仙 俗名 清聲社(社樂)
31 金殿樂	① ② ③ ④ ⑤ ⑥			2	1 1	2 1	1	1 1	1 1				1 1	1	1	1	1	1		管名 金殿樂 俗名 別稱(打令)
32 慶豐年	① ② ③ ④ ⑤ ⑥			2	1 1	2 1	1	1 1	1 1				1 1	1	1	1	1	1		管名 慶豐年 俗名 別稱(社樂) 撰要 別稱(大樂) 五斗(編數大樂) 가시
33 慶陽春	① ② ③ ④ ⑤ ⑥			2	1 1	2 1	1	1 1	1 1				1 1	1	1	1	1	1		管名 慶陽春 俗名 別稱(社樂) 撰要 別稱(大樂) 五斗(編數大樂) 가시
34 萬年長歌之曲	① ② ③ ④ ⑤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管名 萬年長歌之曲 社名 重仙會 俗名 歌曲
35 龍皇曲	① ②	1 1	1 1	2 1		2 1	1 1	1 1	1 1	1			1 1	1						管名 龍皇曲

<page 77 표>

編成樂器 樂名	樂器型別																備考
	A型 大之平音曲	B型 瑞之日和曲	C型 昇歲之萬曲	D型 壽齊天	E型 壽之延長曲	F型 重之光曲	G型 去方之萬曲	H型 雨淋鈴	I型 瑞麟曲	J型 黃河清	K型 五瑞同朝	L型 海南燭板	M型 萬數年長曲	N型 折花	O型 武之寧曲		
鐘	1		(1)		1												(1) 표는 國樂概要에 있는 표, X 표는 國樂概要에 없고 「樂器編成法」에 있는 표.
磬	1		(1)		1												
唐箏	2	2		2	2											X	
短箏			2	2	2											X	
細箏			2	2	2	1		(1)	X			1	1		(1)		
大箏	2	2	2	2	2	1	2	(1)	X			1	1		1		
唐笛	1	1	1	1	(1)	(1)	(1)		X						X		
短笛					X	X		(1)					1		(1)		
奚琴	1	1	1	1	1	1	1	(1)	1		(1)	1	1	1	1		
牙琴	1	1	(1)	1	X	X		(1)	1		(1)	1	1	1	1		
笙			X		X	X		(1)	1	1	(1)	1	1	1	1		
太平			X		X	X		(1)	1	1	(1)	1	1	1	1		
杖鼓	1	1	1	1	1	1	1	(1)	1	X		1	1		1		
座鼓	1	1	1	1	1	1	1	1	1			1	1		X		
小鼓															X		
大鼓															X		
洋琴																	
琵琶																	
琴																	

<page 78 표>

위의 「악기 편성법(樂器 編成法)」을 이해구(李惠求) 박사(博士)는 줄저(拙著) 국악 개요(國樂概要)와 비교하여 다음 표(表)와 같이 열 다섯 개의 유형(類型)으로 분류(分類)하였다<sup>7)</sup>.

그러나 이 「악기 편성법(樂器 編成法)」에는

① 같은 곡(曲)을 관악명(管樂名)과 현악명(絃樂名)으로 구분(區分)하면서도 관현편성(管絃編成)이 분명하지 못한 점.

② 승평만세지곡(昇平萬歲之曲)·수연장지곡(壽延長之曲) 등 향악(鄉樂)에 편종(編鍾)과 편경(編磬)을 편성한 점.

③ 수연장지곡(壽延長之曲)·송구여지곡(訟九如之曲) 등을 편종(編鐘)과 편경(編磬)만으로 편성한 점.

④ 표정만방지곡(表正萬方之曲)·절화(折花)·일승월항지곡(日昇月恒之曲)·금전악(金殿樂)·경풍년(慶豐年) 등의 관악곡(管樂曲)에 세(細)피리를 편성한 점.

⑤ 관(管)이 중심(中心)이 되어야 하는 금전악(金殿樂)·경풍년(慶豐年)·염양춘(艷陽春) 등에 거문고·가야고·양금(洋琴)만으로 편성하거나 이 세가지 악기(樂器)를 관악기(管樂器)와 함께 편성한 점.

⑥ 대취타(大吹打)인 무령지곡(武寧之曲)에 타악기(打樂器)를 일체 빼고 태평소(太平簫) 하나로 한 점.

⑦ 태평춘지곡(太平春之曲)·서일화지곡(瑞日和之曲)·기수영창지곡(其壽永昌之曲)·경록무강지곡(景錄無疆之曲)·유황곡(維皇曲) 등 곡에 연주법(演奏法)도 모르는 장고(杖鼓)를 편성(編成)한 점.

이러한 허다(許多)한 모순과 불합리(不合理)한 점이 발견(發見)된다.

#### 4. 맺는 말

악기(樂器)의 편성법(編成法)은 시대(時代)가 바뀔에 따라 많은 변화(變化)가 있었다. 성종(成宗) 이후(以後)로는 당악계(唐樂系)의 음악(音樂)과 악기(樂器)가 차츰 향악화(鄉樂化) 되어 감에 따라 자연 그 편성법(編成法)에도 변화(變化)를 일으키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變化)는 악원 정원수(樂員 定員數)의 증감(增減)에도 영향(影響)된 바 크다.

특(特)히 1910년부터는 전상악(殿上樂)·전정헌가(殿庭軒架)·종묘제향(宗廟祭享) 등 대규모 편성(大規模 編成)에 의한 연주(演奏)를 가질 수 없게 되었고 한편 무대(舞臺)에 진출(進出)하는 기회(機會)가 많아짐으로써 더욱 편성법(編成法)에 변질(變質)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趨勢)에 따라 편성법(編成法)이 달라지게 되는 것은 필연적(必然的)이고 또 당연(當然)히 변(變)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합악(合樂)의 예(例)와 같이 근본적(根本的)으로 음정(音程)이 서로 다른 편종(編鍾)과 편경(編磬)을 거문고·향(鄉)피리·대금(大琴) 등과 혼성 편성(混成 編成)하여 향악계(鄉樂系) 음악(音樂)을 연주(演奏)하는 일은 삼가해야 할 것이고, 보허자(步虛子)·낙양춘(洛陽春) 등 당악계(唐樂系) 음악(音樂)에는 당(唐)피리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不拘)하고 향(鄉)피리로 대응(代用)하는 모순(矛盾)을 범(犯)하고 있다.

7) 前掲 藝術論文集 第5輯 p. 119

더욱이 주법(奏法)도 모르고 그에 대한 연구(研究)도 없는 악기(樂器)를 외관(外觀)치레나 형식상(形式上)으로 편성(編成)하는 점은 이해(理解)할 수 없다.

악기 편성법(樂器 編成法)은 어디까지나 음악연주(音樂演奏)의 효과(效果)를 위하여 고려(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 의복(衣服)

사람이 의복(衣服)을 입는다는 것은 추위를 막는 것과 장식(裝飾)을 하여 타인(他人)의 이목(耳目)을 끌기 위해서이다. 옷은 이상 두 가지 동기(動機)의 교착(交錯)에서 발달(發達)하지 않았나 생각(生覺)된다. 아무 자료(資料)도 없던 구석기시대(舊石器時代)에도 야수(野獸)의 모피(毛皮)를 몸에 붙이지 않았나 상상(想像)되지만 그 동기(動機)는 단순(單純)히 추위를 막는 것 외(外)에 야수(野獸)의 모양을 해가지고 수렵(狩獵)을 용이(容易)하게 하기도 하고 야수(野獸)와 같은 흉내를 내가지고 식료야수(食料野獸)의 증산(增産)을 기원(祈願)한 것이 자명(自明)하다. 신석기시대(新石器時代)에 와서는 모피(毛皮) 외(外)에도 식물섬유(植物纖維)의 직물(織物)이 출현되어 몸을 덮었지만 그것은 대개 두루마기와 비슷하게 한 장으로 하여 짐승의 뼈나 청동(靑銅)으로 만든 큰 바늘 같은 물건으로 꿰어 걸치지 않았나 생각(生覺)된다. 혹은 속옷 비슷한 것을 속에 입었는지도 모른다. 선사시대(先史時代)에 이르러서는 허리에 여자(女子) 치마 비슷한 것을 걸쳤던 것이 확실시(確實視)되고 이집트나 중국(中國) 같은 나라의 제왕(諸王)의 대의(大衣)는 왕(王)의 위엄(威嚴)을 나타내는 도구행세(道具行勢)를 한 것이 틀림없다. 기후(其後) 수천년(數千年)을 내려오는 동안에 끊임없는 변천(變遷)을 거쳐 현재(現在)와 같은 다양(多樣)의 섬유(纖維)의복(衣服)으로 진화(進化)되었다.